

여자 중고생 감금 나체춤 강요

89.7.19

일가족 5명 적발 환각제 먹여 유흥업소 출연시켜

서울 신정경찰서는 18일 10대 여중·여고생 10명을 감금한 채 환각제를 먹인 뒤 유흥업소에서 나체춤을 추게 하고 출연료를 가로챈 일가족 5명을 적발, 김경덕(46·신월3동 207)씨를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김씨의 동생 경북(45) 경업(43)씨와 경업씨의 부인·아들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가족은 집에 무허가 연예인 알선업체인 '남부기획'을 차려놓고 장아무개(14·여중1)양 등 여중·고생 10여

명을 "3백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 자신의 집에 감금해 놓고 동두천 미군전용술집과 이태원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나체춤을 추도록 해 이들로부터 출연료 1천여만원을 뜯어온 혐의이다.

장양은 구속된 김씨의 강요에 의해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매일 밤 환각제를 복용했으며 "약을 먹어 중독상태에 빠진 언니도 있다"고 말했다.

장양은 지난 4월10일 밤11시경 영등포 디스코텍에 놀러갔다 '영화'(18·가명)라는 여자로부터 "남

부기획에서 춤을 배우면 돈도 많이 벌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할 수 있다"는 핏에 빠져 친구 1명과 함께 감금돼 스탠드바에서 디스코걸로 춤을 추다 지난 5월5일부터 나체춤을 출 것을 강요받고 6월3일 풀려날 때까지 한달동안 나체춤을 추었다고 말했다.

최아무개(17·여고 2) 양도 경업씨의 아들에게 유인돼 매일 환각제를 복용한 채 나체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장양 등은 지난 5월중순 탈출하려다 김씨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난 뒤 감시와 협박 때문에 도망할 엄두도 못냈다는 것이다.

장양과 최양 등은 지난달 3일 새벽, 업소 출연을 마치고 술취한 김씨가 운전한 봉고차에 탔다가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각각 전치 10주·20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비로소 가족들에게 납치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관할 신정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김씨를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장양 가족의 진정에 따라 재수사에 나서 지난 12일 김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